

Korea Development Institute for Self-Sufficiency and Welfare

KDISSW 자활정책 Brief

발행 2022년 1월 발행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13 삼창빌딩 5층

청년 자립도전 사업단 정책 현황

이상아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선임연구원

- 자활정책 이슈 brief는 자활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정책아이디어를 시의성 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자활정책 이슈 brief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I. 청년 자립도전 사업단 지원 정책 내용

1) 추진배경 및 목적

청년 자립도전 사업단은 빈곤한 가정환경에서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하거나 사회경험이 부족한 저소득 청년층의 특성을 등을 고려한 “맞춤형 자립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기존의 자활사업이 “청년”이라는 대상적 특성을 포괄하기에는 한계들이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사회로부터 단절되거나 격리되었거나 빈곤 수급 가정이라는 청년 특징이 기존 자활프로그램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어려움, 그리고 청년층 조건부 수급자들이 지역자활센터에 의뢰가 되더라도 성인 참여자들과 문화적으로 섞이지 못하는 문제 등이 존재하였다. 이에 청년 자립도전 사업단 도입을 통해 청년 개인의 변화와 성장에 중점을 둔 “맞춤형 자활사업”이 2018년 6월에 도입되었다.

청년 자립도전 사업단은 세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첫째, 근로 및 탈빈곤의 의지가 있는 청년들에게 그들이 희망하는 직종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지원 및 근로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하여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둘째, 지속적인 상담 및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참여자들 간의 정서적 지지와 공동체성 회복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개인의 자존감 강화와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세부적인 목표는 [표 1]과 같다.

[표 1] 청년 자립도전 사업단 세부 목표

- ① 전문적인 직무교육을 통한 근로능력 확보
- ② 참여자 1인, 1자격증 취득
- ③ 취·창업을 통한 경제능력 확보
- ④ 참여자들의 자존감 향상 및 정서적 문제 완화
- ⑤ 지역 공동체 내 인적 네트워크 형성

이와 같이 청년 자립도전 사업단은 “빈곤”청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단순히 빈곤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직업훈련을 통한 직능역량 강화와 심리 정서적인 안정 및 사회성 함양에 목적이 있다.

2) 세부 정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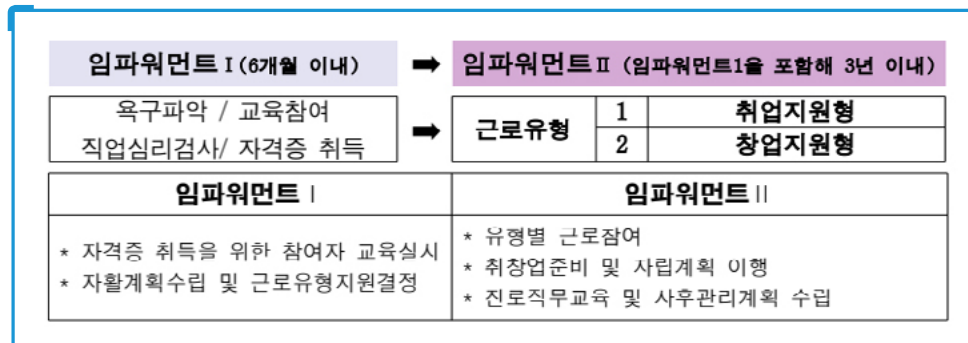
청년 자립도전 사업단의 대상은 만 18세~ 만 34세의 신규참여자 및 자활 근로 참여 기간은 2년 이내의 기존 참여자이다. 다만, 사업단 배치 시점에 만 39세가 넘는 참여자는 연도 상· 하반기 기준에 한해서만 참여가 가능하다. 청년 자립도전 사업단 참여 기간은 3년이며, 3년 이내 자립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타 사업단에 배치하여 자활사업을 최대 5년까지 가능하다. 청년자립도전 참여조건은 1일 8시간 주 5일 참여이며,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기준(일 52,950원)으로 준용하여 지급하고 있다. 표준 월 소득액은 1,376,700원 정도이다.

청년자립도전 사업단의 지원내용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임파워먼트 I, 임파워먼트 II이다. 임파워먼트 I은 6개월 이내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참여자 교육이 실시되며, 자활계획 수립과 근로유형지원을 결정하는 단계이다. 참여자의 주요문제, 욕구, 강점, 자원을 파악하는데 이를 통해 자활 성공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게 되는 단계이다. 현재 임파워먼트 I 기간은 총 1회 참여가능하며, 센터의 재량에 따라 임파워먼트 I 기간을 6개월 내에서 축소가 가능하다.

임파워먼트 II는 참여자가 원하는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근로를 참여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본격적으로 근로에 참여함으로써 생활적응과 직업인으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것을 지원하는 단계이다. 이때 참여자는 취업지원형과 창업지원형 중 근로유형을 결정할 수 있다. 여기서 취업지원형은 (예비)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일반기업, 공공기관, 공기업, 지자체 등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경력과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다. 창업지원형은 청년사업단내에서 사업단을 운영하고, 매출 활동을 통하여 자활기업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참여자에게 내일키움통장 가입 및 시장진입형 기준 적립이 하며, 교육지원을 실시하는데 교육지원은 자격증 취득 및 취업을 위한 폴리텍대학, 직업전문학교 등 진학준비 포함), 전문강사비, 자활연수원 등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참여자별 자립계획에 필요한 교육 등을 지원한다. 교육비 한도는 3년간 220만원 한도에서 참여 기간 동안 분할 사용할수 있다.

[그림 1] 청년자립도전사업 진행 단계(2021)



청년자립도전 사업단 운영방법은 지역자활센터가 청년 참여자 5명 이상(농촌형 지역자활센터는 3명 이상) 모집 완료 후, 일반사업 근로단 구성 및 승인 절차에 준용하여 구성된다. 청년 자립도전 사업단은 시장진입형 사업단과 달리, 사업단 운영기간을 매출액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으며, 운영기간에 제한이 없으나 매출의 정산 및 사용 관리는 일반사업단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추진절차는 다음 [그림 2]과 같다.

[그림 2] 청년자립도전 사업단 추진절차(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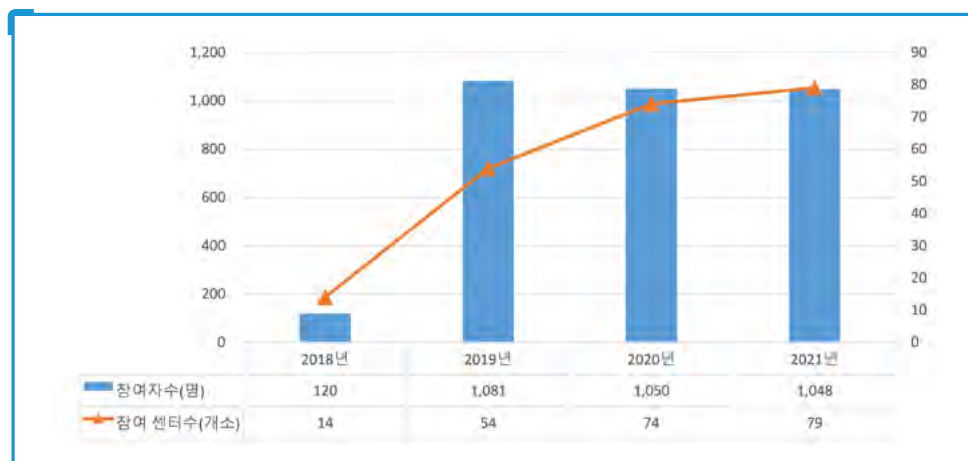
구분	단계	주요 과업		
임파워먼트 I 최대 6개월	사전준비 단계	청년사업단 승인	사업유형준비	지자체 승인 완료
	모집 단계	청년참여자 모집	초기 면접	지역자원연계
	사정 단계	청년참여자 욕구조사	심리·정서적 상황 검사	필수교육 참여
	계획수립 단계	직업심리검사	IAP, ISP 수립	참여자교육계획 수립
	역량강화 단계	자격증 취득	역량강화활동* 실행	근로유형결정 지원
임파워먼트 II I + 최대 2년 6개월	자립활동 단계	유형별 근로참여	진로 직무교육	중간점검
	평가 단계	청년참여자 성장추이 점검 (총4회)	사업단 만족도 평가	평가 결과 분석
	종결 단계	종결 결정	사후관리계획	종결보고서 작성
	사후관리 단계	사후관리진행		
	행정업무	시기별 보고서 작성 및 제출 등		

II. 청년 자립도전 사업단 참여 현황

1) 청년 자립도전 사업단 추이

청년 자립도전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는 2018년 12월 31일 기준 14개소에서 증가하여, 2021년 9월 30일 기준 79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수(재진입 중복 포함)는 2018년 12월 31일 기준 120명에서 2021년 9월 30일 기준 1,048명으로 확인 되었다. 청년 자립도전 사업단은 2018년 8월 사업이 시작 된 후 지속해서 참여센터와 참여자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3] 2018년-2021년 9월 말 참여자수, 참여센터 수



원자료: 2018-2021년 자활정보시스템 DATA

2) 청년 자립도전 사업단 참여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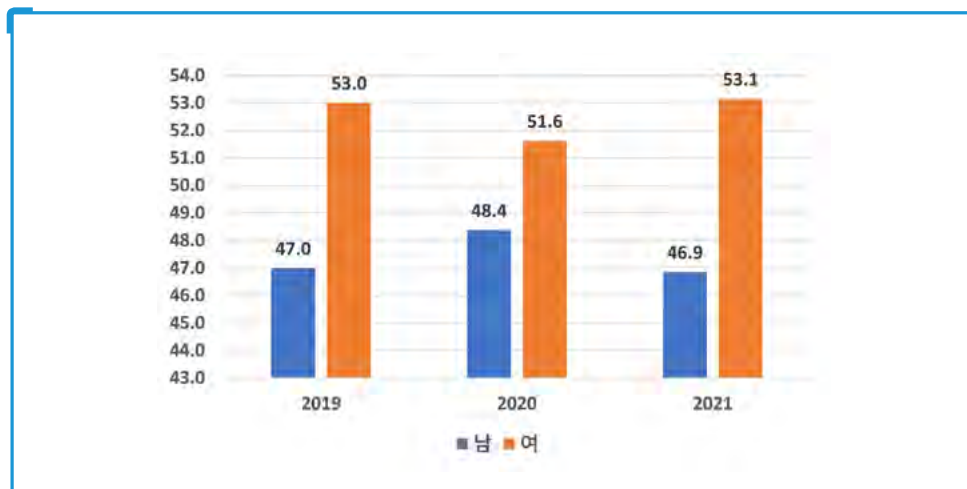
청년 자립도전 사업단의 참여하는 청년은 근로능력점수가 80점 미만이거나, 취업성공패키지 의뢰 취소자 및 중단처리자,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지원기간 만료로 종료된 자(미취업자) 들 중 일부가 참여하게 된다. 다시 말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근로능력과 욕구가 높아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이 가능한 자는 집중 취업지원 대상(80점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Ⅱ 유형에 속하게 되고, 그 외의 빈곤 청년들이 자활근로 대상자가 되는데, 이 자활근로 대상자들 중 일부가 청년 자립도전 사업단에 참여하게 되는 구조이다. 청년 자립도전 사업단 참여자들은 다차원적 빈곤에 노출되고, 노동시장 진입하기에 어려운 여러 사회적 장벽들이 존재한다. 여기서 2018년-2021년 9월까지 자활정보시스템 DATA를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참여자들의 빈곤의 차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년 자립도전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년 자립도전 사업단 참여자 성별을 살펴보면, 2021년 9월 30일 기준, 여성이 557명(53.1%) 남성이 491명(46.9%)로 나타났다. 청년자립도전 사업단 참여자 연령대를 살펴보면, 20-24세가 40.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25-29세가 29.7%, 34-39세가 13.5%, 30-34세가 12.7% 등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 특성별 현황(성별,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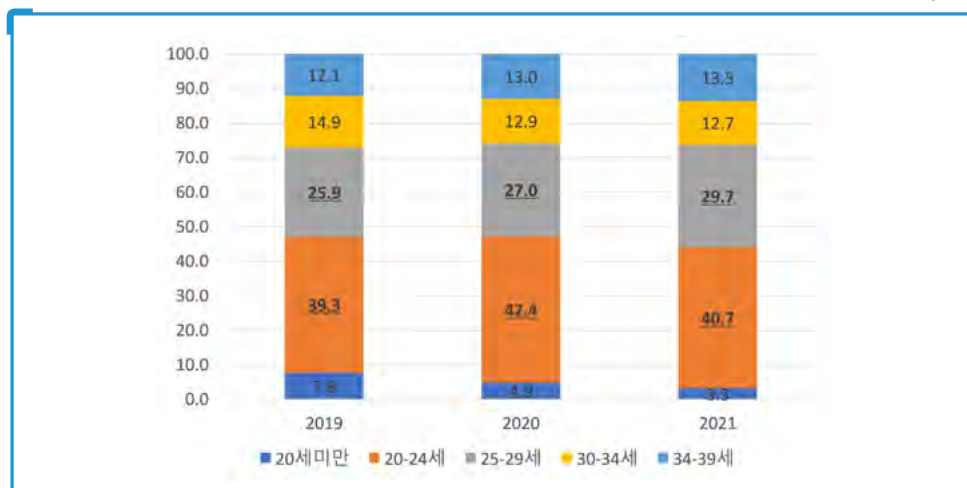
청년 자립도전 사업단 참여자 성별

(단위: %)



청년 자립도전 사업단 참여자 연령

(단위: %)



원자료: 2018-2021년 자활정보시스템 DATA

다음으로 청년자립도전 사업단 참여자들의 학력수준을 살펴보면, 고졸이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대졸이 24.4%, 대학교 중퇴가 9.9%, 중졸이 9.2% 등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2018년-2021년 9월 말 참여자 학력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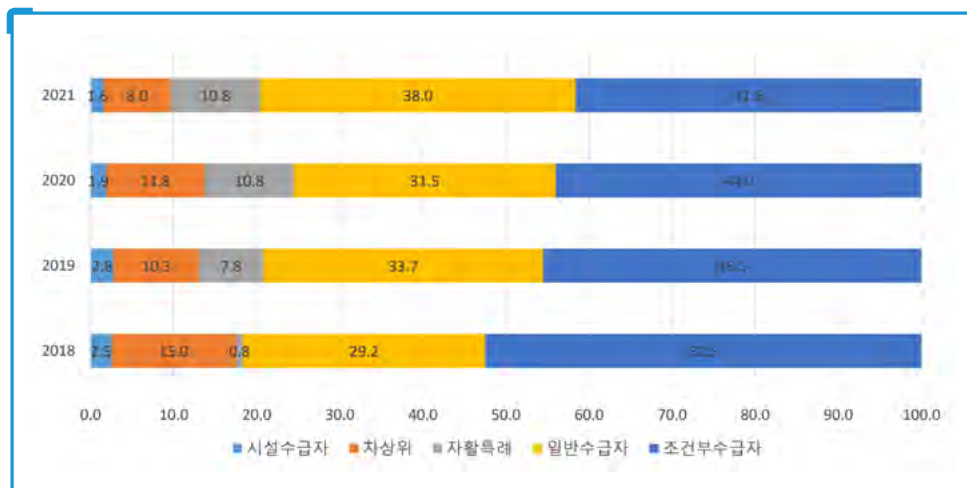
	2019	2020	2021
무학	0.6	0.5	0.3
초졸	1.5	1.8	1.9
중졸	9.5	10.2	9.2
고졸	55.7	52.6	50.0
대(중퇴)	9.1	8.4	9.9
대(재학중)	3.8	3.6	3.7
대졸	19.5	22.5	24.4
대졸이상	0.2	0.5	0.5

원자료: 2018-2021년 자활정보시스템 DATA

청년 자립도전 사업단 참여자들의 수급형태를 살펴보면,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 수급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조건부과, 제시유예자,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중 참여 희망자인 일반수급자 그리고 차상위자 등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5] 2018년-2021년 9월 말 청년자립도전 사업단 참여자 수급유형

(단위 : %)



원자료: 2018-2021년 자활정보시스템 DATA

청년 자립도전 사업단 참여자들의 가구유형을 살펴보면, 2021년 9월 30일 기준 미혼 참여자가 87.6%, 기혼 참여자가 12.4%로 나타났다. 미혼과 기혼 청년 자립도전 사업단 참여자 모두에서 독신 가구(1인가구) 참여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청년가구의 가구형태가 1인가구가 전체 46.3%로 나타난 사회현상과 그맥을 같이 한다. 다만 빈곤 청년 1인 가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청년 자립도전 사업단 참여가 그들에게 단순 일자리 지원이나 생활비 지원조건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와 공동체 차원에서의 사회안전망으로 작동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기혼 청년 자립도전 사업단 참여자 가구 유형 중 한부모+자녀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장으로써,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아이 돌봄과 같은 사회서비스 연계가 청년 자립도전 사업단 참여자들의 자립을 위해서는 필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2018년-2021년 9월 말 청년자립도전 사업단 참여자 수급유형

(단위 : %)

미혼				기혼			
	2019년	2020년	2021년		2019년	2020년	2021년
3세대가구	2.7	2.4	2.0	3세대가구	1.4	2.7	0.9
기타	9.6	8.4	7.4	기타	2.4	1.4	1.8
독신가구	24.8	25.9	27.0	독신가구	7.7	9.5	10.7
부부	0.0	0.1	0.1	부부	1.0	1.4	3.6
부부 + 자녀	13.5	12.3	12.3	부부 + 자녀	31.1	26.5	24.1
비혈연	0.4	0.5	0.6	비혈연	0.5	0.0	0.9
조부모 + 손자녀	4.7	4.6	4.3	조부모 + 손자녀	0.0	0.0	0.0
한부모 + 자녀	41.0	42.8	43.7	한부모 + 자녀	56.0	58.5	58.0
형제자매	3.3	2.9	2.5	형제자매	0.0	0.0	0.0

원자료: 2018-2021년 자활정보시스템 DATA

다음으로 청년 자립도전 사업단 참여자들의 경제적 여건을 살펴보면, 청년자립도전 사업단 참여자의 신용상태를 살펴보면, 2021년 9월말 기준 신용불량 상태에 놓인 참여자 비율이 11.4%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의 상태에 놓인 참여자 비율이 4.3% 인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8월 기준 20대 이하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82.8천명으로 20대 이하 인구의 5.41%에 반해 청년 자립도전 사업단 참여자들 중 금융채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참여자 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2018년-2021년 9월 말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 신용상태

(단위 : %)

	2019	2020	2021
신용양호	83.4	84.2	84.4
신용불량	11.3	10.9	11.4
개인회생	2.2	1.6	0.8
기타 신청	1.7	1.2	0.8
워크아웃	0.7	1.0	1.3
파산신청	0.4	0.8	0.5
파산면책	0.6	0.2	0.7
전환대출 신청	0.0	0.1	0.2

원자료: 2018-2021년 자활정보시스템 DATA

한편,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참여자들은 약 35% 내외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의 부채 이유들을 살펴보면(2021년 9월 말 기준) 학자금 대출, 생활비 마련, 가족부채 등이 사유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핸드폰 미납, 사기(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등도 나타났다. 즉, 실업과 더불어 생계의 어려움으로 빚에 내몰린 상태에서 청년자립도전 사업단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다수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 부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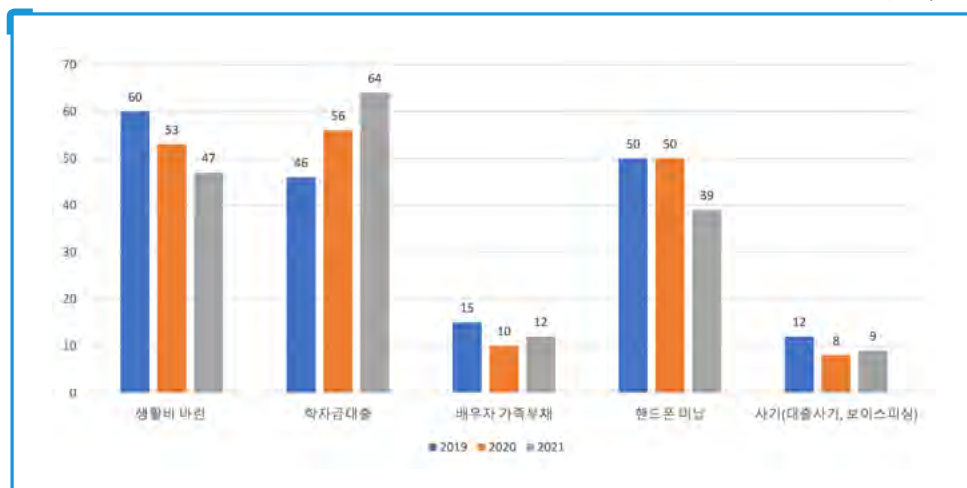
청년 자립도전 사업단 참여자 부채 여부

(단위: %)



청년 자립도전 사업단 참여자 부채이유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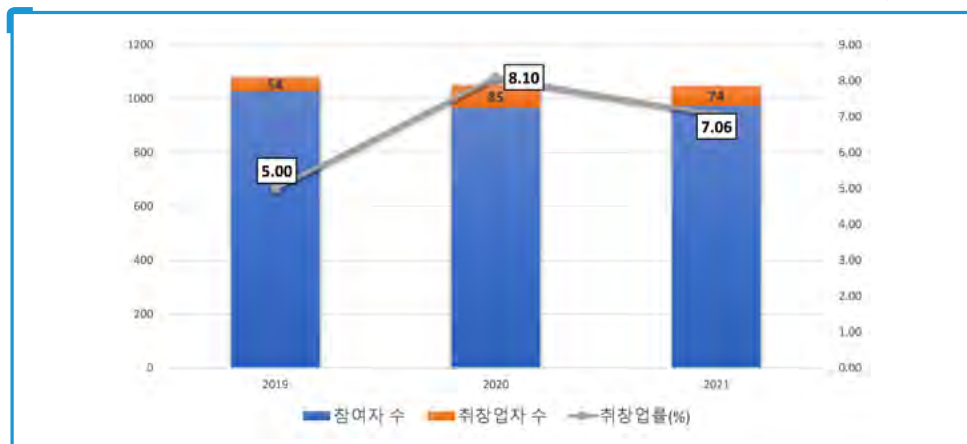
원자료: 2018-2021년 자활정보시스템 DATA

3) 청년 자립도전 사업단 성과

청년 자립도전 사업단 성과를 살펴보면 크게 교육지원 및 근로능력 향상 과 정서적 지지 및 공동체성 회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청년 자립도전 사업단의 실적보고 행정자료를 토대로 그 성과들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의 자활 사업 경제적 성과로 제시되는 취·창업률을 살펴보면 2019년 12월 말 기준 전체 참여자 1,081명 중 54명이 취·창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12월 말 기준 전체 참여자 1,050명 중 85명이 취·창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1년 9월 말 기준 전체 참여자 974명 중 74명이 취·창업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 2018년-2021년 9월 말 청년자립도전 사업단 참여자 취·창업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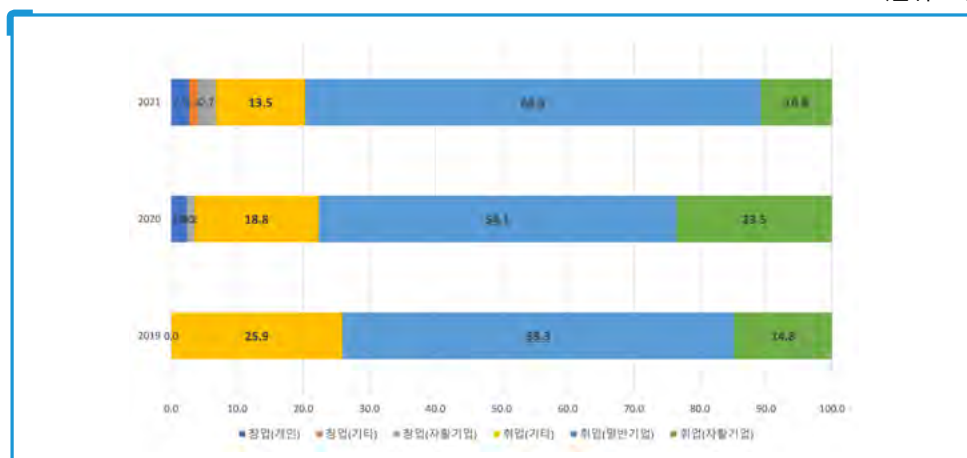


원자료: 2018-2021년 자활정보시스템 DATA

구체적으로 청년자립도전 취·창업 참여자들의 취·창업처를 살펴보면, 일반기업으로 취업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자활기업에 취업한 참여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 자립도전 사업단 에서의 청년과 자활기업 연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가능했던 성과임을 반증한다.

[그림 8] 2018년-2021년 9월 말 청년자립도전 사업단 참여자 취·창업률

(단위 : %)



원자료: 2018-2021년 자활정보시스템 DATA

청년 자립도전사업단 참여자들에게 자격증 취득을 통해, 인적자본을 축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한 결과, 노동시장 진입 가능성을 높이고, 기술훈련을 통해 기회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자활 프로그램과는 차별화 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자격증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 개인 자립 역량과 개인 경로를 고려하여 다양한 자격증 취득이 가능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다만, 아쉬운 지점으로 바리스타 자격과 같이 기존의 자활사업단이 많이 하는 업종의 자격증이지만, 시장 경쟁력이 다소 낮을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이 높은 점이다.

[표 5] 2018년-2021년 상반기 자격증 취득 내용

분기	총 인원	내용
2020년 1분기	총 40명	• 바리스타 취득(3), 컴퓨터 자격 취득(16), 운전면허증 취득(10), 요양보호사(3), 지게차운전기능사(1), 회계 자격(2), CAD(2), 특수대형운전면허 취득(2), 두피모발정보관리사(1)
2020년 2분기	총 35명	• 바리스타(4), 컴퓨터 자격(5), ITQ(3), 운전면허증(16) GTQ그래픽기술자격(2), 웹디자인기능사(1),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1), CAD(1), 직업상담사(1), ACA포토샵(1), 제빵기능사(1)
2020년 3분기	총 169명	• 바리스타(42), 컴퓨터 자격(40), 운전면허증(32), 제과제빵(5), 한국사능력검정시험(5), 위험물산업기사(3), 간호조무사(3), 캘리크라프트지도사(3), 세이크라프트방과후지도사(3), 재활용양말목공예(2), 심리상담사(2), 요양보호사(1), 병원원무행정사(1), 외환전문역(1), 반려동물종합관리사(2), 케익디자이너(1), 기계설계산업기사(1), 조리사(1), 미용사(1), 네일아트(1), 무선조종사기기술자격(1), 사회복지사(1), 자격준비(17)
2020년 4분기	총 318명	• 바리스타(82), 컴퓨터 자격(64), 운전면허증(57), 상품진열(18), 목공·공예(10), 간호조무사(7), 요양보호사(7), 심리상담(7), 정리수납(7), ITQ(5), 해외전자상거래(4), 제빵(3), 한국사능력검정시험(3), 조리사(3), 사회복지사(3), 직업상담사(2), 특수면허(2), 기타
2021년 상반기	총 778명	• 바리스타/커피관련(197), 컴퓨터자격(134), 운전면허(130), 푸드관련(38), 심리상담(32), 정리수납(28), 기능사(환경,기계설비 등)(25), 세무회계(23), 문화예술(22), 마케터(22), 어학(20), 돌봄*(21), 반려동물(21), 사회복지사(15), 이미용사(15), 간호조무사·병원코디네이터(12), 상위학력취득(10), 안전관리(8), 기타(5) (*요양보호사, 방과후지도사, 보육교사, 장애인활동지원 등)

자료: 2018-2021년 상반기 청년자립도전단 실적보고,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내부자료

청년자립도전 사업단은 단순히 취·창업 지원만이 아닌, 참여자들이 지니는 다양한 사회적 어려움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자원 연계 등을 통해 자립을 지원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내일키움 통장 가입 및 시장진입형 기준 적립)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고, 재무상담, 주거지원 연계가 이루어진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서·심리 상담 연계를 통해 정서적 지지와 정서적 회복이 함께 지원됨으로써, 정서적 자활 측면의 성과들도 가져왔다.

[표 6] 2018년-2021년 상반기 외부 자원 연계 (건)

분기	내용	
2020년 1분기	• LH전세임대 신청 및 선정 (1) • 내일키움통장 가입(6)	• 자녀 EBS 학습자료 지원(1) • 신용회복위원회 연계(1), 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1), 금융사기 법률지원(1)
2020년 2분기	• 내일키움통장 가입(7), 내일배움카드 신청 및 발급(17) • 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2), 명의도용 법률지원(2)	• 정신건강센터 연계(2), 의료지원 연계(3) • 생활비 후원연계(1)
2020년 3분기	• 내일키움통장 가입(89) • 물품지원(66) • 교육 연계(58) • 심리상담센터, 중독관리센터 연계(36) • 실습기관 또는 인턴 연계(19)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재무컨설팅, 생활법률 연계(16)	• 지원사업 선정·운영 지원(14) • 건강증진센터 연계(9) • 진학지원(8) • 내일배움카드 발급(6) • 청년임대주택 선정, 주거상향이주지원센터(2) • 청년드림은행(1) • 동사무소 사례관리 연계(1) •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및 도움(1) • 연계준비중(26)
2020년 4분기	• 내일키움통장 가입(98) • 교육실습 연계(92) • 심리상담 연계(59) • 재무상담 연계(24)	• 건강증진 연계(21) • 내일배움카드 발급(11) • 기타 물품지원 등 (89)
2021년 상반기	• 내일키움통장 가입(309) • 교육실습 연계(264) • 재무상담 연계(67)	• 주거지원 연계(64) • 정서, 심리상담 연계(183) • 건강증진 연계(52) • 기타 방역/생활물품지원 등(109)

자료: 2018-2021년 상반기 청년자립도전단 실적보고,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내부자료

정리하자면, 현재의 청년자립도전 사업단은 청년 자립도전 사업단 사업은 사회경험이나 직업경험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기회 제공과 더불어 개인별 역량 맞춤형 자립지원체계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자활정책의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시도라고 할수 있다. 즉, 실업과 빈곤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청년들에 대한 통합적 고용복지서비스 정책으로 기존 자활사업과 달리 개인별 다양한 경로로의 진입을 돕고, 외부자원 연계를 통해 사회적 장벽과 위험을 낮추는 성과들을 일부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기존의 자활사업 지침에 기반하여 설계되고, 중장기 계획 없이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사업의 운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최근 2021년 8월 청년 자립도전 사업단 업무 매뉴얼이 개편됨에 따라 현장에서의 행정적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또한 외부적 요인으로써, 사업의 불투명한 지속가능성, 코로나 19로 인한 기업연계의 어려움 등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여러 정책적·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동되고 있어, 사업의 정착을 위해 개선 및 발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